성진씨앤씨 '매트릭스 DVR 출시'

성진씨앤씨(대표 임병진)는 별도의 매트릭스 장비나 PC없이도 원격감시 및 제어를 할 수 있는 '매트릭스 DVR'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영상선택 및 카메라 제어기능을 가진 매트릭스 보드를 DVR 안에 내장, 별도로 매트릭스 장비 및 PC를 구입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16개의 화면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고 카메라의 상 · 하 · 좌 · 우 및 줌기능 등의 제어가 가능하다.

이 제품은 2004년 1월 오픈 예정인 경북 영천점을 시작으로 전국 이마트 매장에 설치될 것이라고 성진씨앤씨는 덧붙였다.

넉스테크, 산업협력대상 중앙회장상 수상

넉스테크(대표 박동훈)는 지난 11일 전경련 국제산업협력재단(회장 강신호)에서 주관하는 산업협력대상부문 벤처기업과 대기업협력사례부문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상'을 수상했다. 산업협력대상은 기업간 협력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증대,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한 기업에 주는 상으로,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특히 이번 벤처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사례는 넉스테크의 PC보안 기술과 LG CNS의 마케팅과 기술노하우가 결합돼 통합 정보보안솔루션 DIPS(Digital Information protection Security)를 국내에 보급하는 협력 사례를 만들어냈다. 양사의 협력을 통해 넉스테크는 시간과 자금력을 보완하는 효과를, LG CNS는 최상의 제품으로 벤처기업이 선점한 정보보안 시장에 진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엠게임, 온라인게임 '오투잼' 인기 돌풍

게임포털업체 엠게임(대표 손승철)은 퍼블리싱한 온라인게임 '오투잼'이 10대 게이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성공 퍼블리싱 모델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음악 리듬 게임인 '오투잼'은 동시 접속자수가 2만8000명을 기록하고 네이버 종합검색 순위 및 게임 인기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오투미디어(대표 김혜성)가 개발한 '오투잼'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찾는 사람이 없어서 서비스 중단 위기를 여러 차례 맞기도 한 비인기 게임이었다. 그러나 오투미디어가 엠게임과 퍼블리싱 제휴를 맺고 엠게임 사이트를 통해 오투잼을 서비스하면서부터 회원수가 기하르게 증가, 400만명 고지를 넘어섰다. 개발사와 퍼블리셔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홍보마케팅 협력이 오투잼의 흥행 성공이라는 과실을 따게 한 것. 특히 오투잼은 음악이라는 또다른 문화소재를 게임과 연결시켜 온라인게임에 새바람을 일으키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씨앤에스테크놀로지, 중국 4대 통신사업자에 영상전화기 공급

영상전화솔루션 업체인 씨앤에스테크놀로지(대표 서승모)와 자회사인 씨앤에스네트워크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통해 중국의 대표 통신사업자인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넷콤에 비주폰 1150여대, 국내 코스모브릿지를 통해 중국의 차이나레일콤에 400여대 등 총 1500여대 규모의 영상전화기를 공급했다.

이에 따라 씨앤에스는 차이나유니콤에 8000여대를 공급한데 이어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넷콤, 차이나레일콤에 이르기까지 중국내 4대 통신사업자에게 차세대 영상전화서비스용 단말기를 공급하게 됐다. 특히, 내년부터 중국내에서 차세대 네트워크(NGN)망을 활용한 다양한 통신, 방송서비스가 시작하면 현재 중국내 가장 큰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씨앤에스의 수출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드림위즈, '행복한 세상' 사이트 개설

인터넷포털 드림위즈는 작은 행복의 소중함을 소재로 한 '행복한 세상'(www.dreamwiz.com/hpw)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는 자칫 잊을 수 있는 작은 행복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글과 기사 등이 실려 있다. 또 월간 《좋은생각》의 독자들이 가족과 친구, 이웃,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담아쓴 오늘의 좋은생각'을 볼 수 있다.

이외에 자극적인 뉴스에 지친 네티즌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뉴스', 자원 봉사나 기부 등 작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행사를 소개하는 '사랑을 나누어요' 등의 코너도 마련됐다. 드림위즈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행복한 세상의 콘텐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연구소, 코디콤에 DVR 보안 솔루션 공급

안철수연구소

안철수연구소(대표 안철수)는 코디콤(대표 안종균 · 박찬호)과 DVR용 보안 솔루션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으로 안철수연구소는 앞으로 4년동안 44억규모의 DVR용 보안솔루션을 4년간 코디콤에 공급하게 됐다.

안철수연구소가 개발한 DVR용 보안 솔루션은 윈도기반의 DVR을 공격하는 해킹 및 바이러스를 막는 제품이다.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 업데이트되는 것이 특징이다.

DVR은 주로 윈도를 운영체제로 사용하는 PC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고장나는 경우가 많았다. 안철수연구소의 김철수 부사장은 "이번에 개발된 DVR 전용 보안 솔루션은 코디콤을 비롯한 DVR 업계의 보안 표준 제품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며 앞으로 DVR업계에 대한 영업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필텔레콤, CDAM 휴대폰 대만 공략

아필텔레콤(대표 배인탁)은 지난 18일 모토로라 브랜드로 대만 시장에 CDMA 휴대폰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휴대폰(모델명 MS100)은 대만에서 위폰 서비스를 최초로 구현한 단말기로 작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제품이다. 아필텔레콤 배인탁 대표는 "대만은 국민 1인당 단말기 보급률이 110%에 육박할 정도로 휴대폰의 수요와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며 "크리스마스 연휴 특수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1주일 가량 앞당겨 공급했다"고 말했다

핸디소프트 미국 법인, 연매출 1000만달러 돌파

HANDYSOFT

업무프로세스관리(BPM) 솔루션 전문 기업 핸디소프트(대표 안영경)는 미국 법인 핸디소프트글로벌이 현지 진출 5년째인 올해 최초로 1000만달러 연 매출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패키지와 기업용을 통털어 소프트웨어 업체가 해외에서 1000만 달러 매출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핸디소프트는 3분기까지 해외 매출이 875만달러에 달했으며 11월말 기준 매출이 1000만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미국 정부 기관과 캐나다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의 수주 잔량 등을 감안하면 올해 핸디소프트 글로벌의 매출이 지난해 실적의 세배인 1500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했다.

핸디소프트는 또 핸디소프트 글로벌의 이번 4분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진출 5년만에 첫 분기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핸디소프트글로벌은 핸디소프트가 73% 지분을 갖고 있으며, 안영경 대표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 90%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회사이다.